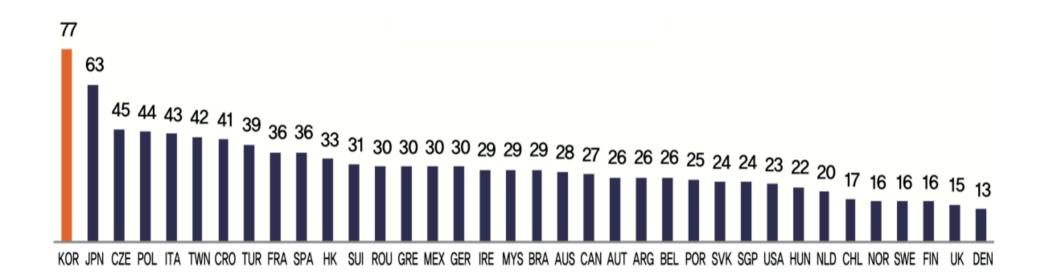
Losing and Finding Direct Relationship with Audien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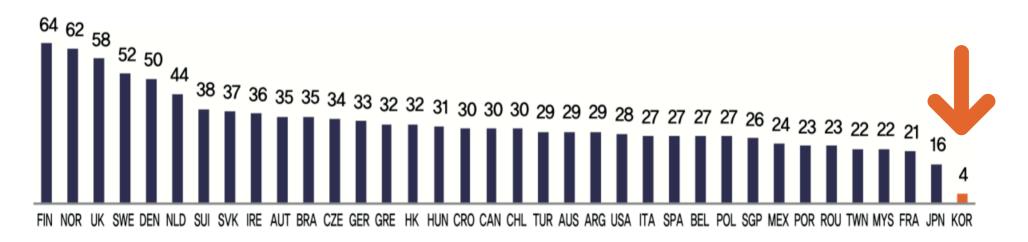
Simon Park
Content Strategist, Mediati

Facebook is a pathway to news for around four-in-ten U.S. adults % of U.S. adults who get news on each social media site 43% Facebook 21 Youtube Twitter 12 Instagram LinkedIn Reddit Snapchat WhatsApp Tumblr 1 Source: Survey conducted July 30-Aug. 12, 2018. PEW RESEARCH CENTER

77% of South Koreans use web portals or other aggregation services to read news.



Only 4% of South Koreans visit news outlets' websites to read news.



Korean media lost audience touchpoint. It's a unique situation (but not so much).

- X Newspaper
- Website
- **X** App
- ? Aggregator
- **Social Media**

- X Newspaper
- **X** Website
- XApp
- ? Aggregator
- **7** Social Media

Email

Email is a survivor

- Push notifications and other innovations
- Relatively neutral as a platform
- What you read is not decided by algorithm
- One of the first apps people use in the morning.
- (You can piggyback their daily routine).

AXIOS theSkim Quartz Obsession

0

NEW NEEK

세상 돌아가는 소식 당연히 알고는 싶지만, 신문 볼 시간 없이 바쁜 게 여러분 탓은 아니잖아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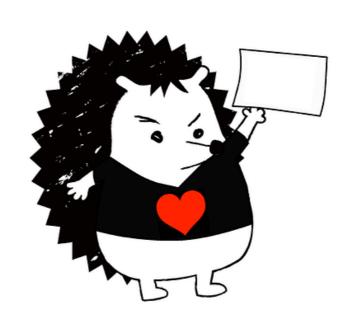
이제 우리가 대신 뉴스의 홍수를 헤엄쳐드립니다

밀레니얼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이슈를 알고 싶은 내용만 딱 모아서 월수금 7시 반, 당신의 메일함으로 보내드릴게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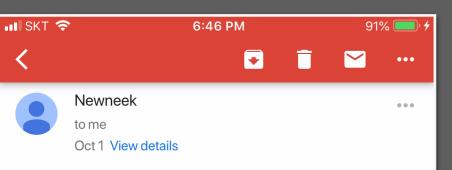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10월 1일 오늘은 세계 커피의 날 🕏

오늘 점심엔 아메리카노에서 서타벅서 한 잔? (스타벅스에서 PPL을 받고 싶어요.)

모바일 화면에 맞게 보기

우리의 레터에서 주황 글씨를 누르면 링크로 연결됩니다.

#1 페북,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가요? 🏰

페이스북이 창립 이래 최대 규모로 해킹을 당했다네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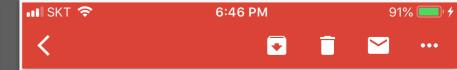
근데 누가 해킹했어? 나도 털렸나? 무슨 정보까지 나갔대?

그걸 다 몰라요. 페북에 따르면 누가 그랬고, 누구의 정보가, 얼마만큼 유출되었는지 불확실합니다. 한 가지 밝혀진 건, 해커들이 여러 기능(View As*와 생일 축하용 동영상)에 있던 버그를 집중 공략해서 '액세스 토큰'을 얻어낸 것 같다는 점. 액세스 토큰이란 다시 로그인할 필요 없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 같은 거예요. 일단 페북은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9000만 개의 계정을 강제 로그아웃하고 액세스 토큰을 리셋했대요(여전히 로그인되어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❤️).

*View As: 다른 사람이 내 계정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. 사실 원래 사용자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챙기라고 만든 기능이었다는 것이아이러니.

나도 해킹을 당했으면 무슨 피해를 보는 거야?

다행히도, 지금은 일단 토큰이 리셋되었으니까 해



🥻 우리가 본 다른 뉴스 🥻

♥ 작년까지만 해도 김정은을 '로켓맨'이라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. "김정은과 난 사랑에 빠졌다"고 고백 했어요.

☆ <u>염색, 파마까지 허용하는 두발 자유화</u>가 내년 2 학기부터 서울에서 시행될 예정.

▲ 인도네시아에서 7.5도의 강진과 쓰나미로 <u>832명</u> 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.

☑ 서울시의 65개 역(삼성역, 건대입구역 등)에 화재 스프링클러가 없대요. 그러나 서울시는 지하철역을 지을 당시에는 설치 의무가 아니었다는 핑계를.

● 내일부터 평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,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(JSA)과 강원도 비무장지대(DMZ) 일 대에서 지뢰 제거작업이 시작돼요.

UPPITY □ 구독하기

MONEY TIPS

머니로그

사무실내자리

ARCHIVE

기사글 포스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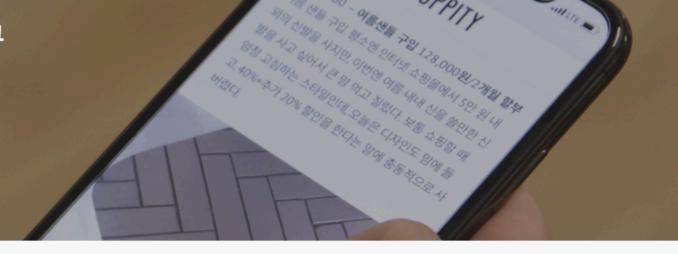
Q

직장인 여성들의 솔직한 소비일기, 머니로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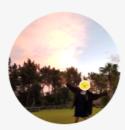
머니로그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여성들이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를 익명으로 공유하는 시리즈입니다. 또래 직장인들이 7일간 직접 기록한 '돈 쓴 이야기'를 구경해보세요!

가장 첫 화 보러가기 >

당신의 머니로그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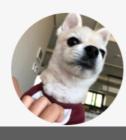
지난 머니로그



2년 차 콘텐츠 제작회사 연출의 웹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일 주익

[머니로그 Ep.16] 오랫동안 꿈꿔왔던 영상일을 하며 즐겁게 사는 그녀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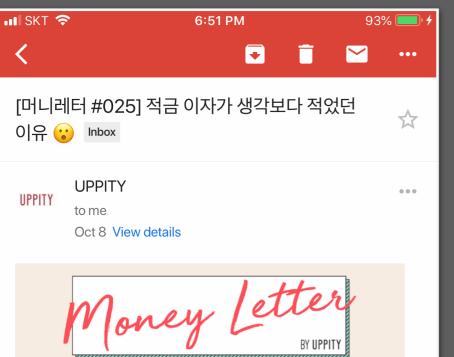
보러가기



'마치 프린세스메이커처럼 계획적으로 살아요' 퇴사 후 프 리랜서가 된 디자이너의 소소한 일주일

[머니로그 Ep.15] 사는 건 프린세스 메이커 같기도 합니다 사는

Uppity.co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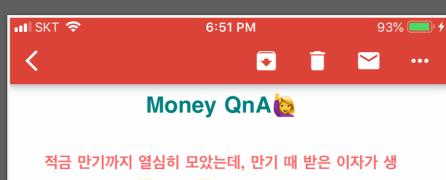
박상현님 안녕하세요, 스물다섯 번째 머니레터입니다. 태풍 지나간 이후로 날씨가 한결 더 가을 같아졌<mark>어</mark>

요. 🧣

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가지만 저녁에는 다시 14도까지 내려가니, 퇴근길 춥지 않게 선선하게 즐길수 있도록 얇은 자켓 하나 챙겨가세요~!

[Money Q&A]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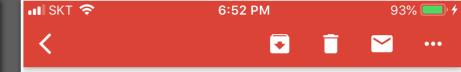
적금 만기 때 들어온 돈이 생각보다 적어서 '엥...?' 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, 오늘 머니레터 끝까지 읽어주세요!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게 붙는 이유와 적금 이자 최대한 받는 팁까지 Money Q&A에서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.



각보다 너무 적어! 이게 어떻게 된 거야?

그쵸, 특히 처음으로 적금 만기를 경험하신 거라면 더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.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넣는 연 2%짜리 적금이라고 하면 느낌상으로는 매달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이자가 붙을 것 같지만, 실제로는 그 반에도 못 미치는 이자가 들어오거든요.





생일 축하드려요!

이선재님, 김유정님, 조슬예님, 김태현님, 이은지님, 송민 우님, 이성규님, 유슬기님, 지은님, 류성민님, 인재홍님, lee hyun ju님, 이주원님, 생일 축하드립니다. ₩

본인의 생일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려면 <u>여기</u>를 눌러주세 요!

돈에 대한 당신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₽

돈을 사용하는 것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답장을 통해 전해주세요.

저축, 대출, 보험, 신용, 투자 등 <mark>어</mark>떤 주제건 좋답니다. 머니레터에서 더 다루<mark>어</mark>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에 대한 제 안도 언제든 환영이에요!

답장하기

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?

어피티 머니레터 무료 구독하고,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소식과 재테크 꿀팁을 받 아보세요! UPPITY

Q

ııl SKT 중

UPPITY

■ SKT 🕏

93% 🛑 🗲

= Q

93% 🛑 🗲

UPPITY

.ııl SKT 🕏

93% 🛑 🗲

Profile.

UPPITY

나이 만 25세 하는 일 화장품업/영업/근무 4년차 연봉과 월 실수령액 세전 4,800만 원/ 290만 원 주거 형태 1인 거주(오피스텔 전세)

Q. 매 달 고정비는 어떻게 나가나요?

- **월세** X(전세)
- 월 평균 교통비 대중교통 약 7만 원, 택시비 약 4만 원
- 통신비 인터넷포함 5만 원
- **저축** 적금 50만 원, 연금저축 35만 원 자동이체 중
- **투자** 펀드 20/20/10만 원 자동이체
- 기타 NGO 기부 매월 1만 원

Q. 소비성향은 어때요?

통장에 현금이 남은 만큼 아낌없이 소비하는 내 성향을 알고 있다. 급여 입금 직후 매월 고정금액을 자동 이체하여 어느 정

곤약젤리 1,500원

촬영이 그래도 늦게 끝나진 않아서 저녁은 퇴근 후 집밥! 그런데 집까지 가는 길에 너~~무 배고파서 곤약젤리(1,500원)를하나 사먹었다ㅎㅎ.

6:54 PM

uppity.co.kr



DAY6, 토요일

점심 0원

즉석 떡볶이는 남자친구가 사줬으니 0원! 떡볶이는 언제든 옳다.

6:54 PM

uppity.co.kr



영화 16,000원 (할인받아서 인당 8,000원에 예매했다!) '퍼 스트맨' 2인 예매!

DAY4, 목요일

어제 촬영이 늦게 끝나 오전 반차를 겟함 +오후 반차를 써서 뜻밖의 휴일을 즐겼다. 오랜만에 친구 한 명과 함께 교수님을 뵈러 갔다. 나른한 오후에 캠퍼스를 걸으니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어서 즐거웠다. ㅎㅎ 그리고 애들 시험 기간이래서 더 즐거웠다. 난 이제 시험 안 보는데~~

6:55 PM

uppity.co.kr

교수님 드릴 간식 23,400원

취업한 졸업생이 1년 반 만에 나타나서 빈손으로 가는 게 넘나 인성 별로인 것 같아서 학교 앞 예쁜 (하지만 가격이 사악함) 카페에서 함께 먹을 간식이랑 음료를 좀 샀다.





≡ 중앙일보

뉴스레터

f y 1 | Q

전체

스타기자

연재기사

J팟

브리핑

※ 뉴스레터 신청 시 유의사항

뉴스레터를 처음 신청하는 분은
 이메일 주소 확인을 위해 반드시
 1회의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인증방법

수신한 인증메일의 [이메일 인증]버튼 클릭

인증 대상

스타기자(연재기사 포함), J팟 별로 각 1회만 진행

- 이메일 인증 후에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여러 개의 뉴스레터를 쉽게 구독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브리핑의 '미리보는 오늘'과' 트렌드 뉴스'는
 조인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.

NEW 따끈따끈한 신상 뉴스레터!





스타기자 중앙일보 대표 전문 기자의 프리미엄 뉴스









Lesson learned, so far

- Rebuild your writing style from scratch.
- Intimacy is the key.
- Become part of audience's daily routine.
- Readers are isolated (for better or worse).
- Email doesn't go viral (yet).
- Data collection requires some development.
- Monetization?